

진정코 자기를 버려서 자기 뿌리를 믿으세요

☞ 25면에서 계속

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실천이 되려면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다집하고 다집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이 세상을 다 먹여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을 길러도 그냥 우뚝 올라오는 게 있죠.

그렇듯이 자라지 않았든 자랐든, 또 더 자랐든, 더 저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라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라지 않은 사람 때문에 더 저런 사람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공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평등공법(平等空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귀중한 도리가 현재 우리 삶에 이렇게 닥쳐 있는데도 우리가 그냥 무심하게 돌아간다면, 나중에 얼마나 손해인지 한 번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무종자면 무종자, 즉 배추 종자면 배추 종자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종자! 그것을 불가(佛家)에서는 종성(種性)이라고도 하고 또 불성(佛性)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그 불성이 맞입니다. 그 똑같은 불성에서 모습이 어떻게 모두 달라지게 나왔을까요? 그것은 모습이 모두 달라야만이 모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는 살 수 없죠. 하나로서는.

그래서 여러분은 될 수 있으면, 앉으나 서나 누우나 자나 깨나, 쉴 수도 없고 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뭔가, 오직 그거 하나를 가지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나갑니다. 여러분은 저하고 이렇게 같은 자리를 하면서 세월 아닌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림없이라도 집착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서 특출나게,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발전 하지 못한 차원에까지 미치게 함으로써 모두 살게끔 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실천적이고 현실적으로 유용하겠습니까? 그래서 『화엄경』에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모든 게 현실 그

발전시킬 수 있다면 정말이지 참단을 넘어설 수 있고, 실천을 할 수 있고, 현실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연구를 해서 차원이 높아 졌다고 해서 ‘나는 이만큼 높으니까’ 하고야 만과 이상을 갖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딱 하나로 만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먹인다고 하더라도, 자기 혼자만 먹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떡을 만들어서 다 먹인다고 지적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로 알게 되면 눈물 날 일이고, 뼈가 아플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내 몸이 가루가 돼서 뿌려져도 다 내놓을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이 연구를 하고

차원이 높아졌다고

‘난 이만큼 높으니까’

하고 이만과 이상을

갖지 마십시오

하여튼 여러분께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혼들 더...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 내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시고 그대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대장부가 되는 길입니다. 지금은 참나찰 나 드는 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알면 뭐,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아저 티득이 되질 않고 깨쳐 질 못해서 모르시겠거든, 절박한 일이 있을 때는 전화를 해서라도, 같이 하는 것을 믿고 해 나가면 됩니다. 자꾸 그렇게 하던 부며 자기

만시를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그러니 오늘부터는 서로 토론을 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공장 부산으로 가는데, 주변 경치를 구경도 못하고 쪽 간다고 합니다. 그럼 쪽 갔다 그냥 온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얘기할 수가 없죠, 급하게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는 길 주변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심어져 있는데, 누가 추수를 다 해 들어서 다 나뉘 먹고 뭐, 어떻게 어떤 것을 다 손살피 알려면 우리가 서로 토론이 필요합니다. ‘해 주시오’ 하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해 주시오’는 아직까지 자기 뿌리를 못 믿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코 자기를 버려서 자기 뿌리를 믿는다면 그런 게 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도중에 ‘아! 이렇게 인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만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절실히 체험을 하고 가겠구나! 이렇게 하면 참선이니 좌선이니 뭐, 이런 걸 따지지 않겠구나!’ 하는 것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배가 부르려면 그저 딱치는 대로 짐수실 줄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배가 고프다고 날더러 지꾸 먹게 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따문이 한마디 하겠는데, 내가 먹어서 여러분의 배가 부를 순 없지만 금할 때는 언제나 내가 여러분과 하나로 돼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가 그릇된 거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나가서 주변에 있는 것을 모두 조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 내가 그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조질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좀더 빨리빨리 크시란 얘기죠. 그러니 이게 그냥 말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알고 보고 듣고, 자기가 현실에 이렇게 하고 나갈 때 그건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그것을 알고선 하부는 땅을 치고 울고, 하부는 하늘을 쳐다보고 울었습니다. “내 불성이 있는 줄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고 말합니다. 내 불성이 이렇게 여여하게 하는 줄 몰랐다는 거죠. “내 불성이 여러 가지로 갖추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고 말합니다. “내 불성이 갖추어지 것을 통하여 내가 자유스럽게 할 수

무히,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묵묵히...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음이,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것이 무슨 까닭에 그렇게 ‘묵묵히’ 일까요. 그게 신기한 겁니다. 아주.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전에 말마 대사가 왜 얼굴에 털이 없느냐고 했죠? 그런데 털이 없는 것이 실체입니까, 털이 있는 것이 실체입니까?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털이 없다는데, 털이 없는 것이 실체입니까, 털이 있는 것이 실체입니까? 여기서 아무리 뼈죽하게 올라간다고 그래도 평등한 거니까요. 절대로 다른 생각 말고 대답해 보세요. 그냥 토론이에요. 이것도. 아때요? 남들은 뭐 거창하게 주장자를 들고 온통 아rian법

우리가 이 세상을

딱 하나로 만들어서

이 세상사람들을 다

먹인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만 먹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석을 하지만요. 아, 주장자들은 모두 가족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왜 무겁게 바깥으로만 들고 다닙니까? 안 그래요? 염주도 이 끝없는 진리를 표현한 거지, 엄보를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끝없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엄보도 짓고 이라는 거죠.

그걸 표현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털이 있는 것이 실체입니까, 털이 없는 것이 실체입니까?

는 거는요?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까?

신도3(남): 털이 없어도 무(無)요, 털이 있어도 무입니다. 털이 있어도 공(空)이요, 털이 없어도 공입니다.

문스님: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이시고) 한마디 해 보십시오. 이것도 무하고 이것도 무하려면 무엇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도3(남): 털이 있어도 실체요, 털이 없어도 실체입니다.

문스님: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뭐라고요? 허허허... (대중 웃음)

신도4(남): 불성!

문스님: 아, 여기 불성 모르는 사람이 어딴 겁니까?

신도5(남): 양쪽을 다 쉬어야 됩니다.

문스님: 또 없습니까? 하여튼, 그것을 알아 내기 위해서 연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되면 스스로 여기서 나오죠. 샘물이 정수에서 스스로 나와서 스스로 물 퍼먹다 보면 그게 스스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그 말을 한다면 또 그걸 흉내를 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 말을 못 하죠. 실천을 못 하면서 말의 흉내만 낸다면 그건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말이죠.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는 잘 압니다. 그래서 말과 뜻과 행이 자기를 다 표현해서 내놓는다 이런 말이 있죠. 자기의 차원을 다 드러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차원이 높습니다. 차원이 높기는 하지만 왜, 계란이 알이 되긴 됐는데요, 눈이 없다면 그건 무효죠. 그거와 같습니다. 아때요? 허허하... 그 말만 하고 더 말을 못 하는 심정도 여러분이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문하십시오. 기쁨을 어떻게 한마디씩 해 보는 데 대해서 너무도 획기적이고 좋은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점이 있거든요.